



민주주의 유린

총체적 정치 공작

박근혜가  
몸통이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하 대화록) 공개가 박근혜-새누리-국정원이 공모한 총체적 정치 공작의 일부였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 [대화록을] 까겠다”고 한 권영세의 지난해 12월 10일 발언이 폭로된 것이다. 권영세는 당시 박근혜의 대선 캠프 종합상황실장이었다.

대선 당시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김무성이 비공개 당내 회의에서 “원문을 보고 내부에서 회의도 해 봤다” ... 공개하려고 했다”고 말한 사실도 유출됐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14일 부산 유세에서 김무성은 “노무현 김정일 간 대화록을 최초로 공개하겠다”며 이번에 공개된 대화록을 낭독한 바 있다.

결국 연이은 폭로로 첫째, 국정원의 불법적인 정치·선거 개입의 몸통이 박근혜(와 이명박)라는 것이 밝혀진 셈이다. 둘째,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과 이에 대한 김·경의 비호, 대화록 공개와 NLL 색깔론이 처음부터 한 몸통이었다는 것도 드러났다.

새누리당과 주류 지배자들은 국정원 같은 보안 사찰 기구를 틀어쥐고, 국내 진보 진영과 노동운동을 사찰하며 정치 공작을 주도해 왔다.

‘반값등록금 운동 차단’ 문건과 각종 ‘종북’ 마녀사냥이 대표적이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이 ‘국가닷컴글원’이 지난해 인터넷에 올린 글이 무려 23만 건에 달할 수 있다고 한다.

지금도 국정원의 범죄는 이어지고 있다. 최근 YTN의 기사 검열과 보도국 회의 사찰 사실이 폭로됐고, 인하대에서는 시국선언을 사찰한 것이 새로 폭로됐다.

폭로된 음성 파일에서 권영세는 “[대화록 공개는] 역풍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컨틴전시플랜(비상 사태에 대비하는 계획)”이라고 했다.

실제로 이 비상계획은 박근혜가 어려울 때마다 가동돼, 동요하는 우파를 결집하고 반대파를 분열·악화시키는 구실을 해 왔다.

정문헌이 NLL 대화록 문제를 처음 꺼냈을 때는, 지난해 10월 8일이었다. 당시 박근혜는 새누리당 내에서조차 ‘박근혜 필패론’이 부상하면서 곤경에 몰리고 있었다.

김무성이 부산 유세에서 대화록 내용을 공개한 12월 14일은, TV 토론에서 이정희 후보의 맹공으로 박근혜가 ‘멘붕’을 겪었던 시점이었다.

## 비상 계획

이제 와서, 박근혜는 이런 과정들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정말 기가 막힌다. ‘비상계획’이 작동될 때마다 박근혜는 맨 앞에서 설쳤다. 10월 정문헌의 발언 이후 박근혜는 “도대체 2007년 정상회담에서 무슨 얘기가 오갔나” 하며 불을 지폈다. 12월에는 김무성이 대화록을 ‘울먹이며 낭독할 때 바로 옆에 서 있었다.

이번 대화록 공개 직후에도 박근혜는 “NLL은 젊은이들의 피와 죽음으로 지킨 곳”이라며 부채질을 했다.

결국, 이 모든 범죄의 몸통이 박근혜라는 의심이 확신으로 굳어지고 있다. 학생들의 시국선언은 이제 교수들과 종교계, 노동조합의 시국선언으로 확대되고 있다. 박지성 결혼과 연역사병 문제 등으로 가려질 수준이 아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저들이 세번째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해 대화록을 아예 공개했겠는가. 따라서 이것은 저들의 자신감이 아니라 위기감을 보여 준다.

박근혜는 이미 초유의 임기 초 위기를 겪었고, 경제 위기 조짐도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이 속에서 조직 노동자들의 투쟁 자신감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6월 27일에는 건설 노동자 1만 5천 명이 서울 시청 광장에 모여 힘을 보여 줬다. 철도 노동자들은 민영화에 반대해 90퍼센트의 압도적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다.

만약 거리 촛불과 노동자 투쟁이 결합하면서 더 커진다면 그 파급력은 작지 않

# NLL에 대한 토 나오는 거짓 선동을 중단하라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 발언이 공개되자, 우파는 '적 앞에서 영토와 자존심을 포기했다'며 길길이 날뛰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NLL 말만 나오면 전부 다 막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는 ... 시끄럽긴 되게 시끄�러운 사람들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우파가 딱 그 꼴이다.

NLL은 영토선(해상경계선)이 아니다. 남북 간에는 해상경계선이 합의된 적이 없다. NLL은 유엔사령부가 한국 전쟁 이후 남한 함정들이 "이 선[NLL] 이북으로 항해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포한 것이다.

1974년에 CIA조차 내부 보고서에서 NLL이 '국제법적 근거가 없고, 남북 간 해상경계선으로 삼을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우파는 남한이 NLL 이남 해상을 실효적으로 관할해 왔고 북한이 묵인해 왔으니 '실질적 해상경계선'이라고 우긴다.

그러나 고(故) 리영희 선생이 지적했듯이, 북한은 1956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북방한계선 침범"을 저지르며, 단 한 번도 NLL을 인정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남한이 영토선이라고 우기며 호전적 정책을 펼치고, 이에 북한이 맞대응하면서 지난 10여 년 동안 서해는 '화약고'가 됐다. 이 과정에서 남북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됐다.

이처럼 서해를 남북 젊은이들의 '넋이 우는' 바다로 만들어 놓은 자들이, 더 많은 '피와 죽음'을 선동하는 것이다. 특히 'NLL 사수'를 떠드는 우파 정치인 중에 군대도 제대로 갔다 온 자가 없다는 사실은 매우 시사적이다.



“형님, 제가 안 그랬어요” “그래, 앞으로 잘해” 영화찍는 김무성과 김재원 이 조폭같은 자들이 더이상 우리를 우롱하지 못하게 하자.

우파가 미국에 대한 비판을 문제 삼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다.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007년 당시 미국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야만적인 점령과 학살을 저지르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패권적 행태를 지적한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 화약고

더구나 우파 자신들도 필요하면 북한 독재자들과 '덕담'을 주고받아 왔다. 예컨대 전두환은 김일성에게 보낸 친서에서

“주석님께 ... 경의를 표해 마지않는다” 하고 쓴 바 있다.

북한 정부도 “지금까지 평양을 방문 하였던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며 2002년 방북 당시 박근혜가 한 '종북' 발언을 언제든 공개할 수 있다고 했다.

오히려, 노무현 정부가 비판받을 점은 미국과 친미 우파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것에 있다.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아시아 선임보좌관이었던 마이클 그린도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 영국 다음 가는 대규모 이라크 파병에다 한미FTA 체결,

주한미군 용산 기지 이전 등 정책적으로 한미동맹에 크나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지금 민주당이 보이는 행태는 그보다 더 못났다. 민주당은 대선 때부터 'NLL을 확고히 지키며 필요한 국방력을 갖추겠다'는 보수적 입장을 내놓았다.

따라서 우리는 NLL 등을 둘러싼 우파들의 거짓 선동에 단호히 맞서며, 민주당과 독립적인 관점에서 박근혜의 친제국주의적이고 호전적인 정책을 좌절시켜야 한다.

### » 앞면에서 이어짐

을 것이다. 이 때문에 박근혜는 무리수를 두면서 우파 결집과 '종북' 물이에 나서는 것이다. 경찰이 26일 범민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두 명을 체포한 것도 이런 공세의 일부다.

동시에 박근혜는 민주당의 지리멸렬함에 기대를 걸고 있을 것이다. 민주당은 'NLL 사수와 안보에서는 여야가 없다'며 거듭 동요하고 우파에 타협해 왔다.

안철수는 또 '정쟁할 때가 아니다'며 간을 보는 상황이다. 진보정당은 분열과 위기의 후유증을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는 이 틈을 파고들며 위기 탈출

을 노릴 것이다. 또, 국정조사를 하면서 시간끌기와 김빠기, 물타기를 하고 기껏 꼬리 자르기 정도를 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민주주의 유린과 각종 반동적 공격의 몸통이 박근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공세를 높여야 한다. 국정조사나 민주당만 쳐다보지 말고, 다양한 세력들이 힘을 모아서 아래로부터 대중행동을 더 확대해야 한다. 거리의 촛불과 노동자 투쟁을 적극 결합시키며, 투쟁을 더욱 전진시켜야 한다.

www.marxism.or.kr

13년째 열리는 가장 오래된 최대 규모 마르크스주의 포럼

## 마르크시즘 2013

7월 19일(금) - 22일(월) 장소: 고려대학교 주최: 노동자연대다함께

지정학적 위기: 동아시아의 불안정과 한반도, 박근혜 정부하에서 계급투쟁 전망 등 50여 개의 주제  
존 롤리뉴, 박노자, 김수행, 우석균 등 50여 명의 국내외 연사



관련 기사들이 실린 **레프트21** 107호를 구입해 보십시오.

<http://www.left21.com>

구입 문의: 02-777-2792 | 홈페이지에서 구독신청이 가능합니다.